

## “나만큼 우리도 중요”... ‘공유’는 희망의 등대



“이제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의 모습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본다거나 말하지 마라. 드러난 현실을 애써 눈감지 않는다면 앞서의 사례는 매일 오르내리는 신문 주요면에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날로 성장하지만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아, 개인은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쪽죽하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의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는 자본주의가 공멸을 면치 못할 거라고 입을 모은다.  
속도를 멈추어야 한다. 옆도 돌리고 보고 가깝게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공유’의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누는 철학을 일상에서 구현해야 하는 거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의 편집을 맡고 있는 미국의 제이 월재스퍼가 엮은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은 공유와 나눔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실천을 촉구한다.  
책의 원제 ‘commons’는 공유의 뜻을 담고 있다. 공기와 물, 비록해 공원, 거리, 인터넷, 도서관 등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일련의 공공재를 의미한다. 좀더 확장해보면 사회보장제도, 무료급식소 같은 사회적 부조 시스템뿐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같은 무형의 작품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유재(공유지)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재산이므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가치는 증대된다. 역사 전반에 걸

쳐 이 같은 공유재는 민주적, 문화적 진보를 견인하면서 인류의 삶에 기여해왔다.  
“현재의 경제적이고 생태학적인 재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작동시키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비트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철저한 개편, 즉 우리의 문화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끄는 핵심 원리들을 뜯어고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이 월재스퍼는 사람들의 협력적 관계와 공동체 회복을 강조한다. 덧붙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공유가 삶의 중요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의 공유에 대한 생각도 담겨 있다. 세계적인 환경 저널리스트 빌 맥키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엘너 오스트롬, 르네상스적 지식인 이반 일리 일리치 등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새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했던 이들의 관점이 소개돼 있다.  
이들은 공유에 근거한 해법이 오늘날의 긴급한 문제를 치유한다는 데 동의한다. 간단한 예로 “우리집 배수구, 우리집 쓰레기통, 우리집 빗물 배수관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공유는 바로 자신의 생존문제다. 더 늦기 전에 공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때다. 제이 월재스퍼의 말은 그나마 한가닥 위로로 다가온다.  
“나만큼이나 우리가 중요해지는 사회의 공유재(공유지)에 대한 전망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등대로 반짝인다.”  
〈검독소·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제이 월재스퍼 엮음

# COMMONS

## 이성·주체·윤리... 인간존재에 질문을 던지다

### ‘히치하이커의 철학 여행’

이진경 지음

이진경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른바 사회구성체논쟁의 이론가로, ‘철학과 굴뚝 청소부’ ‘노마디즘’의 철학자로.  
지난해 ‘뻔뻔한 시대, 혼준의 정치’를 통해 세상에 일침을 가했던 이진경이 ‘히치하이커의 철학 여행’을 출간했다.  
근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의 초입까지 철학의 영토를 함께 여행하는 이 책은 근현대 철학의 주요 쟁점인 이성, 주체, 윤리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550페이지에 달하고, ‘철학’이라는 다소 머리 무거운 소재임에도 이 책에 한번쯤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에 있다.



저자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로이, ‘이슬 우화’의 저자 이슬,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어터슨 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데카르트, 스피노자, 베이컨, 로크, 칸트, 니체, 마르크스 등 철학사(史)의 대가들의 논쟁을 대화체로 풀었다. 상상력으로 구성된 가상의 이야기는 접근성을 높이고, 한번쯤은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게 한다.  
이 책은 지난 1993년 펴낸 ‘상식 속의 철학, 상식 밖의 철학’을 2000년 전면 개정판 ‘철학의 모험’을 다시 고쳐 쓴 책이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고쳐 쓰고 나니 애초의 문장은 10%도 남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책인 셈”이라고 적었다. 〈휴머니스트·2만3000원〉  
/김미은 mekim@kwangju.co.kr

## 자신을 연마하고 내면세계 자유를 누리라

### ‘왕명의 쾌활한 장자 읽기’

왕명 지음

장자의 철학과 삶의 세계를 깊이 있게 조망한 책이 나왔다.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왕명이 펴낸 ‘왕명의 쾌활한 장자 읽기’는 기존의 책과는 해석의 관점을 달리한다. 장자나 동양사상에 국한되지 않고 참다운 인간의 생존방식에 초점을 둔다.  
왕명은 ‘장자’의 원문 해석에 묶이지 않고 장자의 문체를 되살려 상상력과 사유의 범위를 확장한다. 여기에는 왕명이 몸소 겪은 60년 중국 현대사의 질곡의 세월이 중첩되어 드러나 있다.  
왕명이 눈여겨본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장자 특유의



사유방식과 사상이다. 그는 현대의 승자독식 시스템을 비판하며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내면세계의 자유를 누리라고 역설한다.  
“세상 모든 것은 망(忘)이라는 글자 하나로 귀결된다. 하지만 슬퍼하고 근심할 것도 없다. 모든 게 잊힌다면 망이라는 글자도 잊히지 않겠는가? 잊음이 없다면 망이라는 글자도 잊히지 않겠는가? 잊음이 없다면 너 자신도 모두 잊어버릴 것이 아닌가.”  
왕명은 자유로운 삶 못지않게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도 역설한다. 궁극적으로 그는 장자의 사상을 통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끊임없는 성찰과 더불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강조한다.  
〈들녘·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20세기 한국사, 함석헌의 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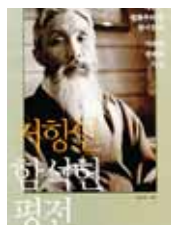
## 도덕성 경계... 위험한 스캔들

## 궁궐 깊숙한 곳, 공녀들의 숨은 이야기

### ‘저항인 함석헌 평전’

김삼웅 지음

20세기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 함석헌. 종교·역사·철학·사상·교육·언론·민중·평화·비폭력·인권·민중·여성·시·아나키즘·세계사에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갖고, 이것을 통섭하는 거대한 지식 체계 학문 세계를 이룬 인물이다.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이 쓴 ‘저항인 함석헌 평전’은 세 번째로 쓰여진 함석헌 평전이다. 저자는 20세기 한국사와 함석헌의 역정을 입체적으로 대비하며, 온 몸으로 시대를 고뇌하고



생을 밀쳐나간 행동주의자의 계적에 주목한다.  
책에서는 함석헌의 구체적인 생애에 집중하기보다는 시대마다 불굴의 신념으로 전개된 함석헌의 저항을 중심으로 추적한다. 특히 20세기 후반기 군부 독재와 유신의 질곡과 한계를 통해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와 과제를 환기하고 있다.  
함께 수록한 17컷의 흑백 사진은 몽글한 마음으로 ‘거인’ 함석헌 선생의 자취를 거리게 한다. 〈현암사·2만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잠동사니’

에쿠니 가오리 지음

사랑하는 남편 곁을 떠나 잠시 푸껫으로 여행 온 슈코는 그곳에서 바비 인형을 닮은 소녀를 만나고, 그 아이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그리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진행된다.  
에쿠니 가오리의 최신 장편소설 ‘잠동사니’는 10대 소녀와 40대 여성의 상반된 감성을 동시에 그려낸 본격 연애소설이다. 낯선 남자와의 정사, 남편의 여자 친구, 미성년자와의 관계, 사랑과 집착... 도덕성의 아슬아



슬한 경계를 오간다.  
이 책은 그동안 에쿠니 가오리가 그려왔던 다양한 사랑의 실체를 벗겨주는 해설서와도 같은 이야기다. 저자의 소설이 늘 그렇듯, 평범한 사랑 이야기보다는 스캔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위험한 관계 속에서 격정적인 사랑을 한다.  
하지만 저자는 절제된 표현을 통해 감정을 섬세하게 응축시킴으로써 모든 관계를 도덕적 잣대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소담출판사·1만2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공녀의 하루’

박상진 지음

역사는 기본적으로 승자의 기록이다. 어제의 승자들이 사료를 쓰고 오늘의 승자들이 해석한다. 때문에 우리는 사서에 기록된 일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승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아웃사이드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한국사들도 그랬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조사에 치중하면서 비주류들의 삶을 연구하는 데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사료 속에서 비주류들이 걸었던 작은 길을 찾아내는 어렵다.  
국가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인 박상진씨가 공녀, 내시, 기생 등 비주류의 역사를 복원한 ‘공녀의 하루’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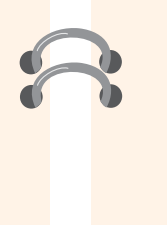
모두 3부로 구성된 책은 1부 ‘하루로 읽는 조선 공녀의 일생’에서 공녀의 역사를 집약할 수 있는 인상적인 하루를 전 생애 속에 녹여냈다. 그들의 봉납날 풍경, 궁체 연등 등 일상 표정을 연산군의 복수로 사형에 처해진 서사상공 조두대의 삶 속에 그렸다. 2부 ‘하루 일과에서 스캔들까지 공녀의 모든 것’에서는 함방, 수방, 소주방 등 각 부서별 공녀의 하루를 세밀하게 묘사했고, 3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공녀 이야기’에서는 조선 최고 갑부 공녀 박상공 등 공녀들의 생애를 스토리로 풀어냈다.  
이 책은 역사가 한두 권짜가 아닌 수많은 대중들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김영사·1만4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신간

▲**언문세설**=‘가장 정확한 한국어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 고종석의 산문 ‘언문세설’이 14년 만에 개정 출간됐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24개가 각각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각 장에서는 해당 자음 혹은 모음의 이들과 기원, 소리와 느낌, 규칙과 활용, 비슷한 단어의 미묘한 차이, 인상적인 시 등이 담겨 있다. 고종석이 쓴 한글에 대한 사전이자, 그가 즐긴 한글 스물네 자와의 놀이다. 〈새움·1만3800원〉  
▲**폐허에서 꿈꾸다**=시인이자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명지대 문학과 남진우 교수의 평론집 ‘폐허에서 꿈꾸다’, ‘나사로의 시화’ 두 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헤테로토피아’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폐허에서’는 다섯 부에 걸쳐 18편의 작가 혹은 작품론이 실렸다. ‘나사로의’에서는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과 지적 문제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그 이후를 추적한다. 〈문학동네·2만원〉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었던 거대한 땅의 지배자 유목민. 그러나 기록을 남긴 정주민에 의해 과거사, 약탈자라는 편견과 오해를 받아야만 했다. 일본에서 몽골연구의 1인자로 손꼽히는 스키야마 마사아키 교수는 역사의 편견과 오해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그들이 어떻게 역사속에서 주변인이자 약탈자, 문명의 파괴자로 폄하됐고, 그들의 역사가 왜곡·축소됐는지 밝혀낸다. 〈시루·2만1000원〉



▲**바이러스 행성**=지구 어느 곳이라도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산과 들, 강과 바다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이들 바이러스는 지구 생태계의 진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자인 칼 집머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생물권을 휘젓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적에 맞게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바이러스와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미국문화 500년 로마를 훑는다**=미국에 대해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 속에 숨어있는 시대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분석한 책이다. 1인 독립출판사를 운영중인 저자 최영식은 책을 통해 콜럼버스의 모순된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공화정과 미국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로미의꿈·1만7500원〉  
▲**마음으로 사진 읽기**=사진심리학자인 연세대 신수진 교수가 읽어주는 ‘사진 속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시각심리학과 사진이론을 접목시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되는 ‘사진심리학’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국내 최초로 개척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진과 심리학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기억, 관계, 꿈, 패남, 즐거움, 감각 등 6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진에 관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다. 〈종양books·1만8000원〉



▲**리처드는 코딱지 파개**=코딱지 파개 리처드가 코딱지 덩어리가 돼 버렸다는 엉뚱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캐나다 창작동화 작가 캐롤린 배너 지은 이 책은 캐나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최고인기를 얻은 책에게 주어지는 ‘블루 스프루스 상’ 후보작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아이와 자연스럽게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종이책·1만원〉  
▲**올라라, 남자친구가 생겨요!**=동양인의 얼굴을 가진 진주의 깨만 눈을 생개풀도 없고, 작은 데다 옆으로 찢어져 있다. 어느날 친구의 놀림에 상처를 받은 진주는 큰 모자를 꼭 눌러 쓴 채 학교에 간다. 이 책은 친구들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 받는 진주 이야기다. 〈주니어RHK·9800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선혜네 가족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먹을 것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고양이 웅이는 어느날 꿈을 찾아 떠난 카리나리를 보며 꿈에 대해 생각한다.



웅이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용감한 고양이 되는 것. 꿈이 있는 고양이가 웅이를 통해 소망하는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준다. 〈창개구리·9800원〉  
▲**얼렁뚱땅 아가씨**=뒤죽박죽 성에 사는 얼렁뚱땅 아가씨.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뭐든지 얼렁뚱땅 해치운다. 설탕을 가져오려면 사람을 가져오고, 장화를 가져오려면 양말을 가져와 왕자님을 곤란하게 만든다. 왕자님께 혼난 얼렁뚱땅 아가씨는 자신을 원망하는 개리개리 도사를 따라 뽕족산 꼭대기로 간다. 이곳에서 도사에게 개리개리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시공주니어·9500원〉  
▲**빅뱅으로 내가 생겨났다고?**=인간이 현재 모습으로 변화하기까지의 진화 과정을 딸의 물음과 아빠의 설명을 통해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 아이들은 단순히 원숭이가 지금의 내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50억년전 우주에서부터 자신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린북·1만1000원〉

## 어린이 책꽂이